

경기-강원, 상생협력 협약 체결



<앵커 멘트>

경기도와 강원도가 광역지자체간 상생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적이 다른 두 도지사가 이끄는 지방자치단체 사이 연정이 이뤄진 건데, 10여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무장지대 DMZ는 경기도와 강원도에 걸쳐 있어 관광개발이 따로 진행돼왔습니다.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도지사가 만났습니다.

효율적인 DMZ 개발을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는 앞으로 관광상품을 함께 개발키로 했습니다

평화누리길을 연장하고 철도 관광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자전거 타기 행사의 공동 개최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남경필(경기도지사) : "관광, 경제, 교통, 안전을 포함해서 더 큰 문제까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파주와 철원 등이 경쟁중인 DMZ 평화공원 유치에는 입장차가 계속 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 했습니다.

이와함께 경기도와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40%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조정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광역교통망 구축, 농산물 판매 지원 등 모두 14개 분야에서 협력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인터뷰> 최문순(강원도지사) :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DMZ의 공동활용, DMZ에 대한 규제 합리화 그리고 SOC의 확충..."

두 광역자치단체는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추진기구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경기·강원 경제·문화·관광 등 '상생협력' 추진



<앵커>

수도권뉴스입니다. 오늘(21일)은 경기도와 강원도가 경제, 문화, 관광 등 다방면의 상생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수원지국에서 이영춘 기자입니다.

<기자>

네, 경기도와 강원도가 교류협력시대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최와 DMZ 개발 등 14개 분야에서 공동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어제 강원도청을 방문해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기, 강원 두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기준 틀에서 벗어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자는데 합의했는데요, 협력 분야는 농·수·특산물 판매와 문화·관광분야 교류 활성화 등 모두 14개입니다.

[남경필/경기지사 : 관광·경제·교통·안전을 포함해 더 큰 문제까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두 지역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DMZ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관광 활성화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최문순/강원지사 : 경기도지사님이 이끌고 계시는 통합의 정치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인 위기를 돌파하는데 밑바탕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앞서 지난 11일 벚꽃축제 기간에 경기도청에서 강원도 직거래장터가 열렸는데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때맞춰 경기도를 방문해 두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하며 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화성·부천·안산·시흥·광명 등 5개 시가 공동으로 광역화장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들 시는 오늘 현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유해물질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시설개방 등 새 화장장을 친환경 안전시설로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화장장과 연계한 매송KTX역 신설계획도 밝혔는데요, 근처 칠보산 자락에 있는 수원 호매실지구 주민들이 화장장건립 계획에 거세게 반대해, 과연 앞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연정 “의미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가 지난 20일 강원도 청에서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고 DMZ 활용 관광상품개발, 농수특산물 및 문화 관광분야 교류 등을 공동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협약을 맺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 지사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최초의 광역지자체간, 그것도 소속정당이 각기 다른 단체장간에 이뤄진 정책연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남경필 도지사 취임후 시작된 연정이 비로소 경기도라느 제한된 범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금석이 됐다는 점에서 향후 양 지자체간 협력에 관심이 집중된다 할 수 있겠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이날 협약을 통해 DMZ활용 관광상품을 개발, 경원선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경기도에서 매년 개최되는 ‘뚜르드 DMZ’(Tour de DMZ, 자전거 퍼레이드)의 공동개최가 추진될 전망이다. 여기에 김포 대명항-연천으로 국한됐던 경기도 평화누리길이 강원도 철원~고성 구간까지 연결되는 명품 트레일 코스로 거듭나게되며, 강화에서 시작해 파주와 문산을 거쳐 강원도 고

성까지 연결되는 ‘동서녹색평화고속도로’의 개설도 추진될 전망이다. 과히 대한민국의 중부권을 동에서 서로 일통하는 생활 및 관광권이 새롭게 탄생하는 셈이다.

이번 협약의 의미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남 지사는 새누리당의 차세대 주차로서 단체장 선거당시부터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정을 공약했다. 당선 뒤에는 끊임없이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들을 설득하며 도내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어내 연정을 성사시켰다. 그리곤 곧바로 강원도와 연계, 정책적으로 대립해온 야당 소속 최문순 강원지사의 참여를 이루어냈다. 연정의 의미를 살리는 생활정치의 올바른 방향과 비전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접적지역을 공유하고 있는 지자체다. DMZ와 무수한 군사지역과 군부대로 인해 매사 동병상련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을 시점으로 경기도와 강원도는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연정의 행보를 보여줄 것을 기대해본다.

12.1 X 14.4 cm

경기도-강원도 광역지자체 간 연정 '맞손'

남경필-최문순 '총14개 협력사업' 공동 협력 첫삽



[앵커] 경기도와 강원도가 광역지자체 간 첫 연정에 '맞손'을 잡았습니다.

도로와 철도는 물론 관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이 시도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오인환기자입니다.

[리포트]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연정'이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됐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어제(20일) 강원도청에서 '경기도-강원도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DMZ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확충에도 공동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 날 남 지사와 최 지사는 모두 14개 항목의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로써 경기도 평화누리길 확장과 경원선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경기도에서 열리는 뚜르 드 DMZ(Tour de DMZ 자전거퍼레이드)의 공동개최 등에도 협력합니다.

특히 김포시 대명항에서 연천군 신탄리역(191km)을 잇는 경기도 평화누리길을 강원도 철원에서 고성까지 연결해 최대 트레킹 코스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동서녹색평화고속도로 개설과 국도 47호선 포천 이동에서 철원 서면구간의 4차선 확포장 공사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강원도는 공동 추진 기구를 구성하는 등 협력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방송 오인환입니다.

오인환 oih@kfm.co.kr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